

# 동사탈락구문에서의 핵 운용 연구\*

주 치 윤\*\*

## 차 례

1. 서론
2. 논항이동과 핵의 운용
3. 음성형태 탈락과 통사부 이동 분석
4. 결론

## 1. 서론

전통적인 관점에서 발화상의 표층구조에서 핵의 생략이 일어나는 공백화(Gapping)구문, 의사 공백화(Pseudogapping)구문, 간접의문문 축약(Sluicing)구문, 그리고 동사구 생략(VPE) 구문과 같은 생략(Ellipsis) 분석은 최소이론에서 다양한 분석대안들을 통한 중요한 논쟁의 주제로 등장했다. 최근까지의 다양한 이론을 살펴보면 생략구문의 분석의 가장 중요한 논점은 동사 핵의 운용과 XP-이동에 대한 본질분석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최근의 다양한 분석 이론에서 논항이동(A-Movement)은 외현적 통사부에서 일어나는 운용으로 간주하여 XP-이동 특성에 대한 이견은 거의 없지만, 핵 X<sup>0</sup> 운용과 관련한 다양한 대안들 간의 관점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사 핵의 운용과 특성 차이가 결국 생략구문의 분석에 결정적인 역할과 다양한 대안들 간의 기본적인 차이를 야기하고 있다. 생략구문과 관련된 최근 이론에서 동사 핵의 특성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 할 수 있다. 먼

\* 이 논문은 2007학년도 인하공업전문대학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저, Lasnik(1995, 1999, 2000)의 이론으로 대표 할 수 있는 동사 핵이 이동이 아닌 음성형태(PF Form)에서 생략이 일어난다는 생략 분석과, 반면에 Johnson(1994)의 연구에서와 같이 동사 핵도 XP-이동과 마찬가지로 외현적 통사부에서  $X^0$ -이동에 의해 발생한다는 이동분석이다. 따라서 생략구문의 분석을 위해서는 상기 생략이론과  $X^0$ -이동이론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기 두 대안들 간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음성 형태에서 핵 운용으로서의 생략구문 이론보다는 외현적 통사부에서 측면이동(Sideward Movement)에 의한 이동분석이 경제성 이론(Economy Theory)에 더 부합하는 결과가 야기됨을 입증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 2. 논항이동과 핵의 운용

### 2.1 외현적 XP-이동과 음성형태 핵 $X^0$ -이동

최근 최소주위이론에서 XP-이동의 동인은 근본적으로 기능투사(functional features)의 모든 비해석성 자질(uninterpretable features)의 점검을 통한 합치도출을 위한 과정으로 주장되어왔다. 즉, XP-이동은 기능투사의 강 자질의 점검을 통한 도출의 파탄을 막기 위해 외현적 통사부(Overt Syntax)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Chomsky(1995)는 XP-이동은 굴절소(Infl)의 명사구 자질이 강하다는 기능범주의 형태론적 특성을 포착한 확대투사원리(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EPP)에 토대를 두고 있다. 마찬가지로 Lasnik(1995)은 Koizumi(1995)의 분리 동사구 가설(Split VP Hypothesis)을 수용 발전하여 영어에서 대격(Accusative Case) 역시 주격(Nominative Case) 점검과 마찬가지로 일치소(Agro)에 내재된 EPP의 점검을 위해 외현적 통사부에서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영어의 강한 명사구 자질점검을 위한 확대투사원리는 아래와 같은 위치도치구문(Locative Inversion Constructions)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 (1) a. In the distance appeared the tower of a town. (unaccusative)  
 b. In the church sang a choir. (unergative)  
 c. In this cave was found an ancient treasure trove. (passive)  
 (Alexiadou & Anagnostopoulou 2001)

- (2) a. The photos showed behind this very hedge to have been hiding  
 Jill and Tony during each other's trials.  
 b. Pam proved in this bed to have slept Washington and Lincoln in  
 each other's biographies.  
 (Branigan 2000)

(1-2)에서 굴절소의 지정어 위치에 점검 받을 어떠한 자질도 지니지 않은 전치사구(PP)가 이동하여 EPP자질을 점검함으로써 기능범주의 형태론적 특성을 포착한 확대투사원리와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상기 문제와 관련하여 Chomsky(2000)에서는 자질점검을 위한 이동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는데, 그는 자질점검은 위치변화가 아닌 장거리 일치(long-distance agreement Agree)에 의해 점검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다만, 선도(pied-piping)는 이동 목표(target)의 EPP-자질에 의해 기인된다고 주장함으로써 EPP는 자질점검과 관계없이 모든 기능 핵은 지정어를 가져야한다는 EPP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상기 제시된 문제를 해결한다. Lasnik(2001) 역시 Chomsky(2000)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EPP의 개념으로 구의 굴절 핵은 반드시 지정어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목적어 역시 일치소(Agro)에 내포된 EPP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외현적 목적어 이동의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로 예외적 격 표시 구문(Exceptional Case Marking Constructions; ECM)을 들고 있다. 이러한 EPP 정의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XP-이동은 모든 구 구조가 지정어를 가져야 한다는 EPP에 의해 외현적 통사부(Overt Syntax)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외현적 통사부에서 일어나는 XP-이동과는 달리,  $X^0$ -이동에 대한 이론은 최소주의 이론에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Chomsky(1995)와

Lasnik(1995)은 원칙적으로  $X^0$ -이동 또한 XP-이동과 마찬가지로 자질점검을 통한 외현적 통사부에서 일어나는 운용으로 주장한다. 즉, 주격 점검과 동일한 방법으로 대격점검을 위해 외현적 목적어 인상이 일어나고, 동시에 동사 또한 강 자질 점검을 위해 외현적으로 인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3)에서와 같이 생략구문에서는 외현적 핵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모순이 발견된다.

- (3) a. \*You will Bob believe.  
 b. You will believe Bob.  
 c. You might not believe me but you will [<sub>AgroP</sub> Bob<sub>i</sub> [<sub>VP</sub> believe t<sub>i</sub>]]

(3)에서 목적어 *Bob*이 EPP의 충족을 위해 일치소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한 후 동사가 외현적 이동을 하지 않은 (3a)는 도출이 파탄되고, (3b)에서처럼 동사 “believe”가 자신의 강 자질을 점검하기 위해 외현적 이동을 하면 예상대로 그 도출은 합치된다. 그러나 (3c)에서 동사 “believe”가 외현적 인상을 하지 않고 생략 되었을 경우 역시 합치된 도출이 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사의 의무적인 외현적 인상은 상기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래(4)와 같은 공백화 구문, 의사공백화구문, 간접의문문 축약구문과 같은 생략구문에서 외현적 핵 이동과 생략이 배치되는 결과를 아래와 같은 예문에서 예상 할 수 있다.

- (4) a. Joan brought some carnations, and Catherine some sweet peas.  
 b. Debbie ate the chocolate, and Kazuko did the cookie.  
 c. A: Mary will see someone.  
 B: Who?

Lasnik은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비생략구문에서는 의무적인  $X^0$ -이동이 요구되는 반면에 생략구문에서는  $X^0$ -이동은 문자화(Spell-Out) 이후까지 연기 된 후 생략 된다고 주장한다. 즉, 핵 인상과 생략은 상보성 (complementarity)을 보이기 때문에 핵이 외현적으로 인상되어 적절한 강 자

질을 점검하거나, 아니면 합치된 도출을 유도하기 위해 핵을 포함하고 있는 최대투사범주를 생략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그는  $X^0$ -이동은 통사부에서의 의무적 XP-이동과는 달리 수의적 이동이라고 주장하고, XP-이동과 생략구문에서  $X^0$ -이동은 비 대칭적 운용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Chomsky(2000)와 Boeckx & Stjepanović(2001)와 같은 최근 최소주의 연구에서는 상기 주장과는 달리  $X^0$ -이동과 같은 핵 이동은 음성형태(PF)에서 일어나는 어떤 한 현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먼저, Boeckx & Stjepanović(2001)은 핵 이동은 문자화 이후에 음운요소(phonological component)에서 일어나고, 이동의 유발원인은 자질이 아니라 형태론적인 요소나 운율적인 요소, 또는 두 요소의 결합에 의해 유인된다고 제안한다. 핵 이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운율적 또는 형태론적 역할을 지지하는 Boeckx & Stjepanović(2001)의 주장은 사실상 핵을 이동하지도 삭제하지도 않는, 즉 동사에 어떠한 일도 하지 않음으로서 생성 될 수 있는 아래 (5)와 같은 비문법적인 문장이 합법적인 문장으로 잘못 판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인된다는 입장이다.

(5) \*Debbie ate chocolate, and Kazuko milk<sub>i</sub> drank *t<sub>i</sub>*.

최근까지 음성형태 이론은 (5)와 같은 문장의 생성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Boeckx & Stjepanović(2001)은 동사이동은 음성형태에서 운율적, 또는 형태론적인 방식으로 일어난다고 주장 한다<sup>1)</sup>.

Chomsky(2000)는 Chomsky(1995)의 주장과는 달리, 핵 이동이 통사부의 운용이 아닌 음운요소에서 일어나는 운용이라는 주장을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제안한다. 첫 번째로, 동사가 원래 위치에 남아 있든, 시제소 T나 보문소 C로 인상되든 간에 동사가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 된다면 해석상의 부담이 줄어들른다는 점을 들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본질적이고 체계적인 효과를 지닌 XP-이동과는 달리, 핵심 굴절 체계(core inflectional system)에서 동사인상의 의미적 효과는 미미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로, 자질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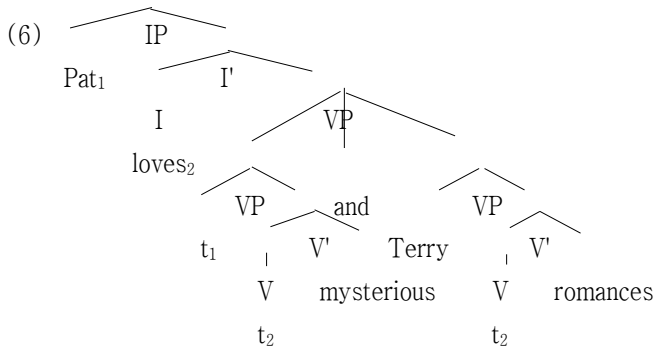
1) Boeckx & Stjepanović(2001)은 XP-이동은 자질점검을 위해 통사부(syntax)에서 일어나는 운용으로 주장함으로써, XP-이동과  $X^0$ -이동의 비 대칭적 이동을 제안하고 있다.

도(feature strength)에 의해 T는 강한 동사 자질과 강한 명사 자질을 지닌다고 가정하면, 강한 동사 자질은 동사를 T로 인상에 의해 충족되는 것인지 동사구를 T의 지정어 위치로 인상하여 충족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강한 명사자질(Nominal feature)은 그것의 핵을 T로 인상하여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명사구를 T의 지정어 위치로 인상하여 EPP를 충족한다. 보문사 핵 C의 한정사 핵 D로의 인상도 마찬가지로 과정에 의해 충족된다. 일반적인 경우에 T는 C에 부가되고 *wh*-구와 같은 XP는, *wh*-핵이 C에 부가되는 대신에, C의 지정어 위치로 인상되며, 반면에 TP는 C의 지정어 위치로 인상된다. 명사구 핵 N은 D로 인상되지 명사구가 D의 지정어 위치로 인상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동사의 T로의 외현적 인상, T의 C로의 인상, 그리고 N의 D로의 인상 등이 굴절범주의 음성학적 접사 특성에 의해 조건의 제약을 받는 음운적 특성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세 번째로, 여러 가지 면에서 협의 통사부(narrow Syntax)의 핵심 규칙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핵 인상규칙의 본질, 즉, 부가규칙(Adjunction rule)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부가규칙은 반 순환적(counter-cyclic) 규칙으로 인상된 핵이 자신의 흔적을 성분통어(C-command)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는 이러한 문제는 외현적 부가(overt adjunction)는 접사특성을 반영해주는 음운과정으로 간주한다면 해결된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상기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핵 인상은 연쇄(chain)를 형성하지 않는 음운과정이라고 주장한다.

## 2.2 통사부 핵- $X^0$ 의 대칭적 ATBI동과 비대칭적 측면이동 이론

XP-이동과  $X^0$ -이동의 본질은 동사 생략구문분석에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앞장에서 상술한 통사부에서의 XP-이동과 Lasnik의 수의적  $X^0$ -이동이나 Chomsky(2000)와 Boeckx & Stjepanović(2001)의 음성형태에서의  $X^0$ -이동과 같은 비대칭적 이동현상과는 달리, Johnson(1994)은 영어의 동사가 굴절소(Infl)로 이동하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XP-이동과 마찬가지로  $X^0$ -이동도 통사부에서 일어나는 운용이라는 주장을

한다. Johnson(1994)은 병렬등위구조(Parallel Coordinate Structure)의 설명을 위해 아래 (6)의 공백화 구문에서와 같이, 결합된 동사구(conjoined VPs)에서 등위접속사의 경계를 넘어 동사가 인상하는 ATB 이동(Across-the-Board Movement)을 제안 한다<sup>2)</sup>.



Johnson(1994)의 분석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전통적인 탈락분석과는 차이를 보인다. 먼저 공백화 구문은 기저에서 CP-등위구조나 IP-등위구조와 같은 완전한 구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VP-등위구조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6)에서 첫 번째 연결어구(conjunct)의 주어 *Pat*<sub>1</sub>이 굴절소 I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하고<sup>3)</sup>, 두 번째 연결어구에서 동사 “loves”는 첫 번째 연결어구의 동사 핵으로 이동한 후 최종적으로 굴절소 I에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동사 “loves”의 흔적 *t*<sub>2</sub>는 동사의 생략에 의해 야기된 것이 아니라 이동의 흔적으로 주장한다.

2) Ross(1967)의 연구 이후 현재까지, ATB이동은 병렬 등위구조로부터 추출(extraction)을 지배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등위구조제약(Coordinate Structure Constraint)의 위반을 피하기 위한 메카니즘으로 이용되고 있다.

3) 전통적인 관점에서 첫 번째 연결어구의 주어가 굴절어구(IP)의 지정어 위치로의 이동은 등위구조제약을 위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Johnson(1994:40-1)은 “...the Coordinate Structure Constraint does not prevent independent A-movement from the initial coordinate.”라고 주장하며 첫 번째 등위구에서 주절의 동사의 왼쪽으로 논항이동이 문법성의 저하를 야기하지 않는 아래의 예문을 들어서 등위구조제약이 너무 강한(too strong)제약이라 주장 한다.

(i) Liz made *Mason* out [IP[IP *t* to be intelligent] and [IP Sarah to be kind]].

Agbayani & Zoerner(2004)은 공백화 구문이 생성되는 환경과 관련하여 ATB 분석이 전통적인 생략을 근거로 한 분석에 비해 세 가지 장점을 들어서 ATB분석의 우위를 주장한다. 첫 번째로, 아래 (7)의 예문에서처럼 공백화 구문은 비 공지시 주어(non-coreferential subjects)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7) \*Pat<sub>1</sub> loves mysterious, and Pat<sub>1</sub>/she<sub>1</sub> loves romances.

(6)의 구조를 근거로, (7)에서 첫 번째 연결어구의 주어 Pat<sub>1</sub>은 최종 이동의 도달점인 단일 굴절어구(I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하여 이동을 하지 않고 동사구(VP)의 지정어 위치에 남아있는 두 번째 결합어구의 주어를 성분통어하게 되어 결속이론(Binding Theory)을 위반하여 비문으로 바르게 판정한다. 반면에 동사생략 분석에서는 “Pat<sub>1</sub> loves mysterious, and she<sub>1</sub> loves romances”가 합법적인 도입형태(input form)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기 비문 법성을 설명하기가 힘들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로, 공백화 구문에서 보문사구(CP)가 아닌 동사구(VP)로 간주하는 두 번째 연결어구에 문장부사의 부가를 금지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8) \*Pat<sub>1</sub> loves mysterious, and [<sub>VP</sub> probably, [<sub>VP</sub> Terry t romances]].

동사생략 분석은 기저 도입 구조에서 연결어구 각각을 IP나 CP와 같은 두 완전한 구를 주장함으로 (8)에서와 같은 두 번째 연결어구에 문장부사가 부가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어 문법적인 문장으로 잘 못 판단할 여지가 발생한다. 세 번째로는 Jonson의 분석은 공백화 구문이 두 번째 연결어구의 주어에 대격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에도 적용 될 수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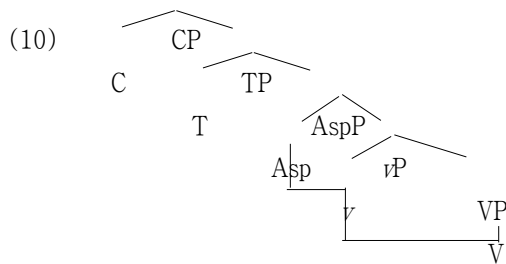
(9) Robin cooked the fish, and him/(?)he **cooked** the rice.

일반적으로 대명사가 공백화 구조에서 이상적인 주어가 아니라 할지라도 두 번째 연결어구에서 대격이 주격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점이다. 이런 현



상은 연결어구를 CP나 IP를 주장하는 동사생략 분석에서는 “\*Him cooked the rice”가 부적합한 도입 형태이기 때문에 (9)에서 대격이 더 자연스러움을 설명하기 힘들다고 Agbayani & Zoerner(2004)는 주장하며, 궁극적으로 생략 분석 보다는 ATB이동 분석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등위구조에서의 추출을 지배하는 과정으로서 Johnson(1994)의 ATB이동은 공백화 구문에서 볼 수 있듯이 문법성의 판단에 적절한 설명을 제공한다.

Agbayani & Zoerner(2004)는 영어의 동사가 굴절핵(I)으로의 인상을 기반으로 한 Johnson의 ATB이동이 공백화 구문의 설명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불어와 영어의 어순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아래와 같은 새로운 구 구조를 제안한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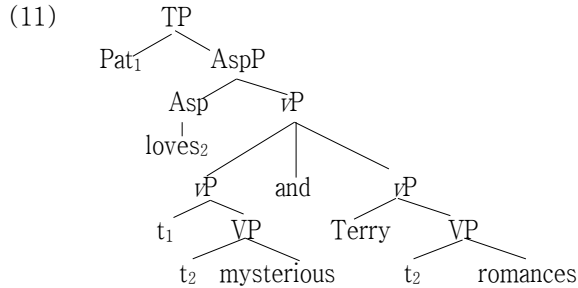


상기 구조에서 시제소 핵 T는 시제를 지닌 법(mode)과 양상(aspect) 조동사를 수용하는 장소이고, 양상구(Aspectual Phrase; AspP)는 비 굴절(uninflected) 조동사가 존재하는 양상투사를 가리킨다. 경동사구 vP는 자신의 지정어 위치에 외현적 논항 의미역을 배당하고, 양상소 Asp는 양상소 핵 Asp로 동사의 이동을 유발하는 범주자질 [+V]를 지닌 것으로 주장하여 동사 [+V]자질을 점검하게 된다. 따라서 영어의 동사는 외현적 통사부에서 경동사 v를 거쳐서, 양상소 핵 Asp에 어떠한 조동사가 위치하지 않는다면, Asp로 이동하게 된다.<sup>5)</sup>

4) 영어와 불어의 어순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Pollock(1989)은 분리 동사구 가설(Split VP Hypothesis)을 제안하여 해결하고 있다.

5) 상기구조에서 영어와 불어의 어순의 차이는 동사가 영어에서는 양상소인 Asp까지 인상되고 주어는 TP의 지정어까지 인상되지만, 불어의 동사는 시제소 T까지 인상되

그들은 새롭게 제안한 (10)의 구조를 바탕으로 (6)의 공백화 구문에 수정된 ATB 이동을 적용하여 아래 (11)의 구조로 재해석을 시도한다.



Agbayani & Zoerner(2004)에 따르면, 공백화 구문은 Johnson이 애초에 주장한 VP등위구조가 아닌 (11)에서와 같이 경동사구 iP 등위구조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등위구조에서 동사운용과 아울러, 동사이동과 생략은 등위구조뿐만 아니라 비등위구조인 종속절(subordinate clauses)에서도 발생되며, 대표적으로 아래 (12)과 같은 비 병렬구조(Non-parallel structures)인 의사 공백화 구문을 들 수 있다.

- (12) a. People in Greece drink more ouzo than they do **drink** brandy.
- b. They like rutabagas more than they do **like** lima beans.
- c. Robin will eat rutabagas, but she won't **eat** ice cream.

(Agbayani & Zoerner 2004: 186)

Agbayani & Zoerner(2004)는 상기 구문의 분석을 위해 비 병렬구조에서 발생하는 기생구문(Parastic Gaps)의 분석을 위해 제시한 Nunes(2001)의 측면이동의 개념을 도입한다.<sup>6)</sup> 그러나 기본적으로 동사이동과 관련한 측면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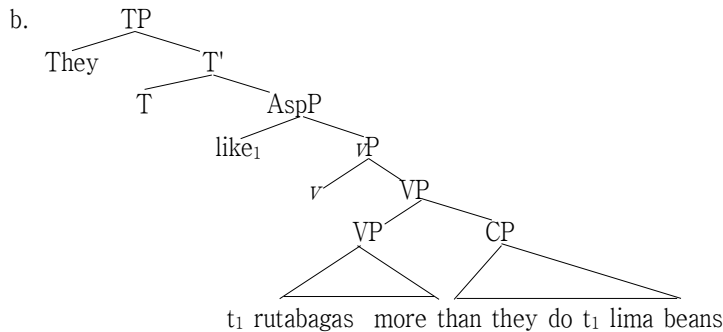
어 두 언어의 어순의 차이가 유발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6) 아래의 예문과 같은 기생구문은 부가어구 내에 포함된 어떤 요소를 주절의 동사구로 측면이동의 결과로 야기된다고 Nunes(2001)는 주장한다. 물론 기생구문에서 측면

은 등위구조에서 적용되었던 ATB의 개념을 종속절과 같은 부가어구로 유도되는 비 등위구조로 확대 수정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즉, (12)에서 추출되어 인상된 요소는 VP나 CP가 아니기 때문에 병렬 등위구조에서와는 반대로 종속절과 비 병렬 관계를 형성하여 Johnson의 대칭적 ATB이동이 아닌 비대칭적 ATB이동을 보인다. 이러한 ATB이동에서 비대칭적 이동을 측면이동으로 재 분석하여 비대칭적 구조에서 동사생략구문을 설명을 시도한다.

측면이동을 바탕으로 Agbayani & Zoerner(2004)은 위 (12b)의 도출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아래 (13)에서 볼 수 있듯이 배번집합(enumeration set)속에 단 하나의 동사 “like”만 존재한다.

- (13) a.  $N = \{they(2), rutabagas, lima\ beans, more\ than, like, do, T, v(2), Asp(2), C\}$



배번집합 내에 유일한 동사 “like”만이 존재하는 반면에, 그 동사와 자매관

이동은 XP-이동이라는 점에서 상기 (12)에서 볼 수 있는 X<sup>0</sup>-이동인 동사이동과는 구별된다.

- (i) [Which newspaper]<sub>1</sub> did Kim [<sub>VP</sub>[<sub>VP</sub> recycle t<sub>1</sub>][<sub>CP</sub> after PRO reading t<sub>1</sub>]]?  
 (ii) This is the paper which<sub>1</sub> Kim [<sub>VP</sub>[<sub>VP</sub> read t<sub>1</sub>][<sub>CP</sub> before PRO filing t<sub>1</sub>]].

부가어구에서 *wh*-구를 복사한 후에 주절의 동사구와 부가어구의 병합(merge)에 앞서 각각 동사 *recycle*과 *read*에 먼저 측면이동을 통하여 병합한다. 그런 이후에 부가어구 CP는 문자화 되고, 이어서 주절의 동사구에 병합되어 기생구문이 생성된다고 주장한다.

계(sisterhood relation)에서 허가가 요구되는 명사는 “rutabagas”와 “lima beans” 두 개가 존재한다. 부가어구에 병합된 동사 “like”는 (13b)의 도출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 위치에서 “ima beans”를 허가 한 후에 복사되어 주절의 목적어의 의미역을 방출하기 위해 “rutabagas”와 병합된 후 경동사 *r*를 거쳐서 양상소 핵 Asp의 [+V]자질을 점검하기 위해 Asp로 최종 ATB이동이 일어난다. 결국 의사공백화 구문은 두 도출영역인 CP와 *r*P를 가로질러 하나의 동사가 복사와 병합에 의한 ATB이동으로 생성된다고 주장 한다.<sup>7)</sup>

### 3. 음성형태 탈락과 통사부 이동 분석

#### 3.1 음성형태 생략 구문 분석

음성형태에서 동사생략현상 분석은 Koizumi(1995)의 분리 동사구 가설(Split VP Hypothesis)과 Chomsky(1993, 1995)의 자질점검 이론(Feature Checking Theory)을 근거로 한 Lasnik(1995, 1999, 2001)의 대안과 자질점검이 아닌 형태론적 요소, 운율적 요소 또는 두 요소의 결합에 의해 야기되는 순수한 음성형태의 현상으로 설명하는 Boeckx & Stjepanović(2001)의 이론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전자는 음성형태에서 동사 핵의 생략은 동사의 형식자질 점검여부와 연계하는 반면에, 후자는 핵 이동의 유발원인이 자질적인 것이 아니라 형태론적 또는 운율적인 요소라는 순수한 음성형태의 현상으로 설명한다. 두 대안간의 핵 이동과 생략현상에 대한 설명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동사의 생략현상은 음성형태에서 일어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7) Agbayani & Zoerner (2004)는 의사공백화 구문에서 주절의 동사구로 하나의 동사의 복사와 병합과정은, 그렇지 않을 경우 비 합치 도출을 야기하기 때문에, 최후수단(Last Resort)에 의해 부가어구에서의 측면이동에 의해 야기된다고 주장한다. 기생 구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측면이동은 부가어구와 주절의 동사구가 동시에 생성될 때 일어나며, 따라서 부가어구가 문자화(Spell-out) 되기 앞서 측면이동이 일어나 부가어구나 주어위치에서 주출을 금지하는 추출영역조건(Condition on Extraction Domain)의 위반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Lasnik의 동사 운용의 핵심은 Chomsky(1993, 1995)의 자질점검이론을 근거로 대격점검을 위해 외현적 목적어 인상과 더불어 동사 또한 자신이 지닌 강 자질 점검을 위해 외현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동사 인상구문과는 달리, 아래 (14)로 도출과정을 다시 표현한 위 (4)의 예문에서처럼 문자화 이전에 목적어의 외현적 인상이 일어나지만 동사는 자신의 강 자질 점검을 위해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 문자화 이후까지 남게 되는 공백화 구문, 의사공백화 구문, 간접의문문 축약 구문과 같은 생략구문은 자질점검이론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 (14) a. Joan brought some carnations, and Catherine [<sub>AgroP</sub> some sweet peas [<sub>VP</sub> brought]].  
 b. Debbie ate the chocolate, and Kazuko did [<sub>AgroP</sub> the cookie [<sub>VP</sub> eat<sub>t</sub>]].  
 c. A: Mary will see someone.<sup>8)</sup>  
 B: Who [<sub>C</sub> [<sub>IP</sub> Mary will see]]?

상기 생략구문에서 점검받아야 할 강 자질이 문자화 이후까지 남아 있다면 그 도출은 파탄된다는 Chomsky(1993)의 음성형태 파탄이론(PF Crash Theory)을 위반하게 되어 비문으로 잘못 판단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Lasnik은 도출의 파탄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서 음성형태에서 강 자질 점검을 받지 않은 핵이 포함된 최대투사의 생략을 통하여 음성형태 파탄을 회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동사는 외현적으로 인상되어 적절한 강 자질을 점검받거나, 아니면 (14a,b)와 같이 음성형태에까지 강 자질이 점검되

8) 간접의문문 축약구문의 경우 *who*가 굴절구(IP)를 벗어나서 보문사 C의 지정어 위치로 외현적으로 이동하지만, 굴절구의 핵인 굴절소(InfI)가 외현적으로 인상되지 않고 남게 되면 음성형태에서 점검받지 않은 강 자질 때문에 그 도출이 파탄된다. 따라서 도출의 파탄을 막기 위해 점검되지 않은 굴절소의 강 자질을 포함하고 있는 굴절구(IP)를 생략함으로써 합치된 도출이 된다고 주장한다. 공백화 구문이나 의사공백화 구문과 같은 음성형태에서 점검 받지 못한 동사 핵의 강 자질로 인한 도출의 파탄을 막기 위해 동사가 포함된 최대투사인 동사구 생략과는 달리 굴절구의 생략이라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근본적으로는 음성형태 파탄이론을 근거로 한 동일한 도출과정이라고 Lasnik은 주장한다.

지 않고 남아있는 동사 핵을 포함하는 최대투사범주가 생략되어야하고 (14c)와 같이 점검 받지 않은 굴절소(Infl)가 포함된 굴절구의 생략으로 합치된 도출을 유도할 수 있다는 핵 인상과 생략의 상보성을 주장한다. 결국 Lasnik은 핵  $X^0$ 의 운용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비 생략구문에서는 강 자질 점검을 위해 의무적  $X^0$ 이동을 주장한 반면에, 생략구문에서는 문자화 이후까지  $X^0$ 이동을 연기하는 수의적인 핵 이동을 주장한다.

Lasnik의 생략구문과 관련한 상기 주장은 대략 세 가지 관점에서 이론적 약점을 드러낸다.<sup>9)</sup> 먼저, 비 생략구문과 달리 생략구문에서의 수의적 핵  $X^0$ 이동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공백화구문, 의사공백화구문, 간접의문문 축약구문과 같은 생략구문에서 목적어가 문자화 이전에 강 자질 점검을 위해 외현적으로 이동되는 반면에 핵의 이동은 문자화 이후까지 연기되고 합법적인 도출을 위해 문자화 이후에서 핵을 포함하고 있는 범주의 생략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설명은 동사의 생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도출과정이 국부적(local)이지 않고 비 국부적으로 도출과정상에 미리 문자화 이후까지 예상하여 적용하는 '예상적 적용(look-ahead)'이라는 지연원리(Procrastinate)에 따른다. 즉 수의적  $X^0$ 이동은 어떤 연산의 적용은 가능한 늦게 적용해야하며, 강 자질 점검을 위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외현적 통사부에서 이동 등의 연산을 수행하고 논리형태까지 기다렸다가 연산을 수행해도 아무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경제성 원리(Economy Principle)중에 하나인 지연원리(Procrastinate)에 부합된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적 적용'은 외현적 도출과정의 어떤 특정 지점에서 어떤 문법적인 요소가 이동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미리 알아야만 그것을 막기 위해 외현적 통사부에서 이동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통사부 도출과정에서 음성형태 표상(PF representation)을 미리 살펴야한다는 문제가 야기된다. 생략구문에서의 수의적  $X^0$ 이동은 지연원리에 입각한 대표적인 '예상적 적용'으로 Collins(1997)는

9) Lasnik의 생략구문 분석에서 야기되는 세 가지 문제와 관련하여 '예상적 적용'의 문제와 XP-이동의 수의적 이동의 가능성은 Boeckx & Stjepanović(2001)에서 지적하고 있으며, 불어와 영어의 비교언어학적 어순의 차이를 설명하기 힘들다는 Lasnik의 이론적 약점은 Alexiadou & Anagnostopoulou(2001)가 지적하고 있다. 필자 또한 이들의 문제 제시에 전적으로 동감하여 이러한 약점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생략구문 분석의 핵심이라 생각한다.

국부적 경제성에 입각한 문법에서는 이 원리를 제거해야한다고 주장한다.<sup>10)</sup>

두 번째 문제로는 외현적 논항 및 핵 이동과 관련하여 불어와 영어의 비교 언어학적인 어순의 차이를 설명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Pollock(1989)과 Chomsky(1991)는 두 언어의 어순의 차이는 일치소(Agr)와 T-접점(T-node), 그리고 상기 두 접점들의 명사자질(N-features)과 동사자질(V-features)의 자질강도의 차이에서 기인된다고 한다. 불어의 일치소는 자질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외현적으로 목적어와 동사의 인상이 요구되나 영어의 일치소는 약하기 때문에 내현적(covert)으로 목적어와 동사가 인상된다고 주장하여 두 언어의 어순의 차이가 아래와 같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sup>11)</sup>

- (15) a. Elmer lave souvent son chat.(Elmer washes often his cat)
- b. \*Elmer souvent lave son chat.
- c. Elmer often washes his cat.
- d. \*Elmer washes often his cat.

반면에 Lasnik의 주장처럼 비 생략구문에서 영어의 동사자질도 강하여 자질 점점을 위해 외현적으로 인상된다고 가정한다면 두 언어간의 어순의 차이를 설명 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초래된다.

세 번째 문제는 Lasnik의 비 생략구문에서 의무적인  $X^0$ -이동과 생략구문에서 수의적인  $X^0$ -이동의 주장과 관련하여 XP-이동 또한 생략구문에서 수의적 이동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제시한 Boeckx & Stjepanović(2001)의 지적에서 찾을 수 있다. Boeckx & Stjepanović(2001)은  $X^0$ -이동과 마찬가지로 XP-이동도 생략구문에서는 수의적이고 비 생략구문에서는 의무적 이동을

10) 지연원리는 외현적·내현적 구분에 의존하는 원리이다. 그러나 최근 최소주의에서 순환적 문자화 가설(cyclic Spell-Out hypothesis)에서는 외현적·내현적 구분이 폐기되므로 더 이상 지연원리의 설정이 유지되지 못하므로 지연원리는 제거되게 된다.

11) 순환적 문자화 가설(cyclic Spell-Out hypothesis)에서 외현적·내현적 구분이 폐기되므로 영어와 불어의 어순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Pollock(1989)과 Chomsky(1991)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으나 일단 기존 최소주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Lasnik의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순환적 문자화 가설을 근거로 해서 두 언어간의 어순의 차이를 설명하기위한 시도가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새로운 대안은 다음 장에서 살펴 보겠다.

추론 할 수 있다는 의문을 제시한다. 즉, Lasnik의 주장이 옳다고 가정하면, 의무적 XP-이동과 수의적인 X<sup>0</sup>-이동은 공백화와 의사공백화 구문과 같은 생략 구문을 형성하고, 반대로 아래 (16)과 같은 동사는 외현적으로 인상되지만 목적어는 문자화 이후까지 남는 수의적인 XP-이동과 의무적인 X<sup>0</sup>-이동 구문도 같은 맥락에서 상정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6) \*Debbie got chocolate, and Kazuko got<sub>i</sub> [VP t<sub>i</sub> **chocolate**] too.

생략구문에서 수의적인 X<sup>0</sup>-이동과 마찬가지로 음성형태에서 과탄을 피하기 위해 점검되지 않은 강 자질을 지닌 목적어를 포함하고 있는 동사구를 생략한다면, 음성형태에서 도출의 과탄을 피할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 할 수 있다. 그러나 비 문법적인 문장 (16)은 XP-이동은 결코 수의적일 수 없고 합치된 도출을 위해 반드시 외현적 이동이 일어나야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Boeckx & Stjepanović(2001)은 Lasnik이 제안한 어떠한 문법체계에도 의무적인 XP-이동과 수의적인 X<sup>0</sup>-이동을 보장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Lasnik의 이론의 약점으로 볼 때 생략구문의 설명을 위한 완벽한 대안이 되기엔 무엇인가 부족함을 예상 할 수 있다.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Boeckx & Stjepanović(2001)은 음성형태의 또 다른 분석을 제안한다. 그들은 동사 이동과 같은 핵 이동이 통사부의 운용이 아닌 음운요소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간주하는 2장에서 상술한 Chomsky(2000)의 세 가지 근거를 수용하여 핵 이동은 문자화 이후에 운율적 요소, 형태론적 요소 또는 두 요소의 결합을 통한 음운요소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간주한다. 반면에 XP-이동은 자질점검을 위한 외현적 통사부에서 일어난다고 주장하여 XP-이동과 X<sup>0</sup>-이동의 비대칭적 운용을 제안한다. 핵 이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음성형태에서 운율적 또는 형태론적 역할을 주장하는 그들의 이론적 근거로, 그들은 사실상 핵을 이동하지도 삭제하지도 않는, 즉 동사에 어떠한 일도 하지 않음으로서 생성될 수 있는 아래 (17)과 같은 비 문법적인 문장이 합법적인 문장으로 잘 못 판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인된다는 입장이다.



(17) \*Debbie ate chocolate, and Kazuko milk<sub>i</sub> drank *t<sub>i</sub>*.

그들은 현재의 음성형태 이론은 (17)과 같은 문장의 생성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사 이동은 음성형태에서 운율적 또는 형태론적인 방식으로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핵 이동은 통사적인 도출이 아니기 때문에 핵 이동과 생략은 둘 다 음성형태에서 일어나며, 이동을 할 것인지 생략을 할 것인지를 두 운용간의 선택은 형태론적 요인이나 운율적 요인, 아니면 두 요인의 결합과 같은 통사부와는 독립적인 음운요소의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14a,b)의 공백화 및 의사공백화 구문은 목적어의 외현적 이동이 있는 후에 음운요소에서 나머지 동사구의 삭제를 통해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Boeckx & Stjepanović(2001)은 핵 이동과 생략은 둘 다 음성형태 운용이며 핵 이동과 생략은 음성형태에서 경쟁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쟁의 결과 음성형태에서 동사가 이동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생략된다고 제안한다. 그들의 음성형태에서의 핵 운용이론은 Lasnik의 생략구문에서만 적용되는 예외적인 수의적  $X^0$ -이동이라는 핵 운용의 예외적 적용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한 Lasnik의 이론에서 문제가 되었든  $X^0$ -이동이 수의적인지 아닌지 알기위해 미리 음성형태 표상을 살펴보는 ‘예상적 적용(look-ahead)’이라는 최근 최소주의에서 제거를 시도한 지연원리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음성형태에서의 핵 운용은 구문적 상황에 따라 핵이 외현적으로 인상되거나 문자화 이후까지 남게 되는 수의성을 제거함으로써 문법의 복잡성(complexity)을 줄이고 단순화 했다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음성형태에서의 핵 운용의 분석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Boeckx & Stjepanović(2001)의 대안에서는 음성형태에서의 이동과 생략을 야기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즉 음성형태에서 이동과 생략이 경쟁할 때 어떤 경우에 이동이 일어나고, 또 어떤 경우에 생략이 일어나는지 분명하지 않은 채 막연히 운율적 또는 형태론적 이유에 의해서 야기 된다고 주장한다.

(18) a. Debbie got chocolate, and Kazuko got chocolate too.

- b. Debbie got chocolate, and Kazuko did chocolate too.
- c. Chris slept already, but Pat didn't sleep yet.
- d. Chris slept already, but Pat didn't yet.

(18a, c)는 음성형태에서 핵 이동이 일어난 경우이고 (18b, d)는 동사구 생략을 통해 생성된 경우로 모든 문장이 문법적인 문장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의미적인 관점에서 볼 때 (18a, c)의 문장 보다 (18b, d)의 생략구문이 상대적으로 초점화 되었다는 점 외는 문법성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의 이론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핵 이동과 생략이 경쟁할 때 동사구 생략을 선택하게 되는 요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최대의 문제점으로 노출된다.

### 3.2 통사부 측면이동 분석

Nunes(2001)는 병렬등위구조로부터의 ATB 이동을 등위구조에서 측면이동으로 재분석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TB 이동과는 달리, 동사의 측면이동은 성분통어 위치로 이동되지 않기 때문에 핵 이동 제약(Head Movement Constraint)이나 최소연결조건(Minimal Link Condition)을 위반하지 않는다. 2.2.에서 이미 소개한 것처럼 Agbayani & Zoerner(2004)는 Nunes(2001)의 측면이동을 수용 발전하여 동사의 생략구문을 측면이동의 한 예로 분석한다. 그들은 공백화 구문과 의사공백화 구문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2장에서 논의된 측면이동을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설명된다고 주장한다.

- (19) a. ?\*Robin likes rutabagas, and/or she does(n't) lima beans.
- b. Robin likes rutabagas more than/ as (much as) she does lima beans.
- c. Robin doesn't like rutabagas, but she does lima beans.<sup>12)</sup>

12) Agbayani & Zoerner (2004)는 공백화 구문과 의사공백화 구문에서 *but*은 등위접속사보다는 잘 알려진 종속접속사와 동일한 통사적 운용을 보이기 때문에 *but*을 등

- d. Robin likes beans and Kim, rice.
- e. Robin likes beans \*more than/\*as (much as)?\*but Kim, rice.

상기 구문에서 의사공백화 구문은 부가어구에서 자연스럽게 허용되지만 (19a)와 같은 등위구조에서는 매우 부자연스러움을 볼 수 있다. 2장의 (11)의 구조를 상징한 공백화 구문은 등위절에서 순수한 경동사구(*vP*)의 등위관계를 요구하는 반면에 부가어구의 종속절에서는 경동사구의 등위관계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그들의 분석은 공백화구문과는 달리, 아래 (20)과 같이 의사공백화 구문은 공지시 주어를 허용함을 예상할 수 있다.

- (20) a. Robin<sub>1</sub> likes rutabagas, but she<sub>1</sub> doesn't lima beans.
- b. \*Robin<sub>1</sub> likes rutabagas, and she<sub>1</sub> lima beans.

(20a)의 의사 공백화 구문은 (13b)의 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CP인 종속절이 연결되어 적절한 결속영역(binding domain)을 형성하지만, 경동사구(*vP*) 연결어구와 관계되는 의사공백화 구문은 적절한 결속영역을 제공하지 못하여 비문으로 판정된다고 주장한다. Agbayani & Zoerner(2004)는 공백화 구문과 의사공백화 구문 둘 다 동사 인상과 측면이동이 관련되었다는 유사점을 설명하고, 동시에 의사공백화 구문은 부가어구에서 측면이동이 일어나는 반면에, 공백화 구문은 경동사구 연결어구로부터 측면이동이 일어난다는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공백화 구문은 등위구조에서 측면이동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ATB효과와 동일한 패턴을 보이며, 그들의 분석은 비 등위종속절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의사공백화 구문까지 수정된 ATB이동인 측면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Lasnik과 Boeckx & Stjepanović(2001)은 공백화구문, 의사공백화 구문, 그리고 동사구 생략(VPE) 구문을 하나의 음성형태에서 생략이라는 동일한 운용, 즉, 동사구 생략 분석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Agbayani & Zoerner(2004)는 다섯 가지 경험적 측면을 들어서 측면이동을 이용한 이동분

---

위접속사가 아닌 종속접속사(subordinator)로 간주한다.

석이 동사구 생략(VPE) 분석 보다 우위를 점한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로, 의사공백화 구문에 대한 동사구 생략 분석에 따르면 통사적으로 의사공백화 구문은 동사구 생략이 일어나는 구조적 환경에서 생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21)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동사구 생략은 등위절이나 종속절에서 동일하게 허용 될 수 있는 반면에, 의사공백화 구문은 종속절에서는 자연스럽게 생성될 수 있으나 등위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sup>13)</sup>

- (21) a. ?\*Robin likes rutabagas, and/or she does(n't) like lima beans.  
 b. Robin likes rutabagas more than/ as (much as) she does(n't) like lima beans.  
 c. Robin likes rutabagas, and Kim does like rutabagas too.  
 d. Robin likes rutabagas more than Kim does like rutabagas too.

두 번째로, 동사구 생략은 하나 이상의 조동사를 쉽게 허용하지만, 의사공백화구문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 (22) a. Robin has been playing the oboe, and Kim has been playing the oboe too.  
 b. ?\*Robin hasn't been playing the oboe as much as she has been playing the oboe too.  
 c. Pat could have been drinking beer, and Kim could have been drinking beer too.  
 d. ?\*Pat couldn't have been drinking beer as much as she could have been drinking gin.

동사생략 분석은 통사적으로 상기 구조적 차이를 포착 할 수 없다. 만약 의

13) 이동분석은 (21)의 문법성의 차이를 의사공백화 구문은 부가어구로부터 주절로부터 측면이동에 의해 일어나는 반면에 공백화 구문은 병렬 연결된 경동사구(vPs)로부터 초래된다는 관점에서 문법성의 차이를 적절히 설명 할 수 있다.

사공백화 구문이 단지 동사구 생략이라고 가정한다면, 다중 조동사 환경과 관련한 구조적 차이가 존재하지 말아야만 한다. 그들은 상기 예문과 관련하여 다중 조동사 구문에서 조동사는 경동사 핵 *v*의 상위에 위치한 시제소 T와 양상 핵(Aspect heads) 위치를 점유하며, 주 동사는 양상 핵 Aspect의 하위의 위치에 남게 된다. 따라서 (22b, d)의 의사 공백화 구문의 문법성의 저하는 동사 V가 충분히 높이 인상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로 동사구 생략은 역행으로(backward) 적용할 수 있으나, 의사공백화 구문은 역행으로 적용 될 수 없다는 점이다.

- (23) a. Even if Kim could **speak French**, she wouldn't speak French.
- b. As much as I should **paint the kitchen**, I won't paint the kitchen.
- c. \*Even if Kim could **speak** every Romance language, she wouldn't speak French.
- d. \*As much as I should **paint** the entire kitchen, I won't paint behind the refrigerator.

Agbayani & Zoerner(2004)는 부가어구는 주절어구에 선행된 위치에서 직접적으로 병합되어, 부가어구는 주절 CP의 왼쪽에 부가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동사는 부가어구에서 주절의 동사구로 측면이동 할 수 있다. 그러나 (23c,d)의 문장파탄의 원인은 부가어구의 동사의 복사(copy)와 주절의 양상핵(Aspect head) 위치에 놓인 동사의 복사 사이에 연쇄를 형성하지 못해 파탄된다고 주장한다. 즉 연쇄형성은 연쇄의 머리(chain of head)에서의 복사와 연쇄의 발(foot of chain)에서의 복사 사이에 성분통어 관계가 요구된다. 두 복사 사이에 성분통어 관계가 없다면, 그들은 연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 Nunes & Uriagereka(2000)에 의하면, 연쇄를 형성하지 못 할 경우에 두 복사중 하나를 음운요소에서 생략하는 것이 허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23c,d)의 비문을 설명한다. 다시 말해서, (23d)의 경우에 배변집합에서 하나의 동사 “paint”만 존재한다. 먼저 그 동사는 부가어구에 병합되고, 그 위치에서 복사된 후에 주절의 동사구 VP로 병합된다. 주절의 동사구에 병합된 동사는 이어서 주절의

경동사구 $t_P$ 를 벗어나서 양상 핵(Aspect head)으로 인상된다. 이 과정에서 CP에 부가된 부가어구에서의 동사 “paint”의 복사가 양상 핵으로 이동된 동사를 성분통어하지 못해 적절한 연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되어 연쇄의 발(foot of chain)의 생략이 불가능하여 비문으로 바르게 판정된다.<sup>14)</sup>

네 번째로, 동사구 생략은 부정사구(infinitive clause)에서는 가능하지만, 의사공백화 구문에서의 동사의 생략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 (24) a. I don't play chess as often as I would like to **play chess**.  
 b. \*I don't play chess as often as I would like to **play** checkers.

동사구 생략 분석에서 왼쪽 잔존요소(left remnant)로 부정사 표지(infinitival marker)인  $to$ 를 남기고 동사구 생략이 일어나는 반면에, 상응하는 의사공백화 구문에서 핵인 동사의 생략이 불가능 하게 됨을 동사구 생략 분석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생략이 아닌 측면이동에 근거를 둔 Agbayani & Zoerner(2004)는 부정사 표지 뒤에서 이동이 일어나는 것을 배제하는 독립적인 동기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예로서 그들은 아래 (25)의 동사구 전치(VP Preposing)를 들어서 설명한다. 즉, 동사구는 잔존요소로서 정형 조동사(finite auxiliary)를 남길 때 자유롭게 전치 될 수 있는 반면에 부정사 표지  $to$ 를 좌초한 상태로 전치 할 수 없다.<sup>15)</sup>

- (25) a. I said I am going to reform, and reform<sub>i</sub> I certainly will  $t_i$ .  
 b. \*I said I would reform, and reform<sub>i</sub> I certainly am going to  $t_i$ .

다섯 번째로, 동사구 생략구문과는 달리, 의사공백화 구문은 섬 제약조건

14) (23a,b)의 VPE 구문은 연쇄의 형성과는 관계가 없다. VPE는 이동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연쇄형성이 동사구 생략구문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15) Agbayani & Zoerner (2004)의 부정사 표지  $to$ 를 남긴 상태로 동사구의 전치를 배제하는 독립적인 동기는 동사구 생략 분석에 대한 측면이동의 이론적 우위를 설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to$  이하의 동사의 어떠한 이동도 불가능 한 것으로 보아서 생략보다는 이동에 대한 어떠한 제약 때문에  $to$ 이하의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인지 할 수 있다.

(island constraint)에 매우 민감한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다.<sup>16)</sup> 다시 말해서, 의사공백화 구문은 동사 이동과 중요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동사구 생략으로 분석하기에 힘든 면이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 (26) a. Robin will fascinate the children, and I believe [the claim [that Kim will fascinate the children too]].  
 b. Robin can speak French, and she has [a friend [who can speak French too]]  
 c. \*Robin won't fascinate the children, but I believe [the claim[that she will fascinate the adults]].  
 d. \*Robin can't speak French, but she has [a friend [who can speak Italian]].

동사이동분석에서 의사공백화 구문은 이동의 제약조건을 준수해야하는 동사인상을 요구한다. (26)에서 관계사절과 복합명사구는 부가어구로서, 내포된 상기 부가어구에서 밖으로의 이동은 추출영역제약(Constraint on Extraction Domain: CED)을 위반하게 된다. 추출영역제약효과는 부가어구와 같은 통사영역에서 밖으로 어떤 요소를 추출하기 앞서 선형적 어순(linear ordering)을 목적으로 순환적 문자화(cyclic Spell-Out)를 통하여 음성형태(PF) 전달될 때 일어난다. 즉, 어떤 구조가 문자화 되어 음성형태에 전달되면, 그 구조 속에 포함된 어떤 요소도 더 이상 통사적 운용의 적용에 접근되지 않는다. (26c,d)의 경우, 동사가 처음으로 병합된 부가어구는 명사구에 부가되고, 그 명사구가 형성되면 선형적 어순을 위해 문자화 된다. 배번집합의 유일한 동사는 그 동사가 포함된 부가어구가 이미 음성형태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주절어구에 복사되어 질 수 없게 되어 그 동사는 이동이 불가능해져 비문으로 판정된다. 결과적으로, 의사공백화 구문은 이동과 관련된 통사적 운용으로 이동에 대한 제약조건을 준수해야하지만 (26c,d)는 섬 제약조건을 위반하여 비문인 반면에, 동사구 생략은

16) 일반적인 종속절이 아닌 복합 명사구(complex NP)나 관계사절(relative clause)과 같은 내포된 의사공백화 구문은 동사구 생략구문과는 달리 문법적으로 어색한 표현으로 판명되어 동사구 생략구문과 의사공백화 구문은 통사적 차이를 보여준다.

이동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동의 제약 조건인 섬 제약조건의 준수가 요구되지 않아 (26a,d)는 정문으로 판정된다는 주장이다.<sup>17)</sup>

Agbayani & Zoerner(2004)는 상기 다섯 가지 동사구 생략구문과 의사공백화 구문의 차이를 들어서 두 구문은 서로 다른 통사적 운용이라 주장하며, Lasnik(1999)의 의사공백화 구문은 단순히 동사구 생략의 한 예라는 주장을 반박한다. 또한 그들은 Lasnik(1999), Chomsky(2000), 그리고 Boeckx & Stjepanović(2001)가 주장한 동사이동은 문자화 후(Post-Spell-Out)의 도출로서 음성형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동사이동은 협의 통사에서 일어나는 통사적 운용으로서 이동은 통사적 제약조건을 적용받는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Agbayani & Zoerner(2004)의 핵 이동과 관련된 기본적인 주장은 공백화 구문과 의사공백화 구문은 둘 다 동사이동의 특성을 공유하지만 동사구 생략은 동사 이동과는 다른 운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물론 공백화 구문과 의사공백화 구문은 동사 이동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의사공백화 구문은 비대칭적 ATB 이동, 즉 측면복사이동(sideward copy movement)에 의해 야기되고, 공백화 구문은 대칭적 ATB이동이라는 점에서는 구문적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두 구문의 생성은 근본적으로 통사부에서 동사의 이동과 연계되어 있다는 통사적 연관성을 지닌 반면에, 동사구 생략은 상기 두 구문과 도출과정과 연관성이 없는 또 다른 현상이라 주장한다. 결국, Agbayani & Zoerner(2004)의 이론의 핵심은 생략구문에서 핵  $X^0$ -이동 역시 XP-이동과 비 생략구문에서의  $X^0$ -이동과 마찬가지로 협의 통사에서 일어나는 측면이동에 의한 외현적 이동이라는 점이다.

17) 동사구 생략이 이동과 관계없는 운용이라면, 동사구 생략은 어떤 경우에 야기되는지 의문이 야기된다. Lasnik이 주장한 순수한 음성형태의 탈락현상으로 간주한다면, Agbayani & Zoerner (2004)의 동사이동분석과는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들(p. 208; fn 18)은 Lobeck(1995)의 음성적 영 동사구 대용형(phonetically null VP Proforms)이 동사구 생략의 대한 올바른 대안이 될 수 있다면, 현재 그들의 이론의 수정이 필요가 없으며, 또한 더 이상 Lasnik의 이론이 유지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 4. 결론

Chomsky(1995)와 Lasnik(1995)의 최소주의 이론에서는 XP-이동은 기능 투사의 비 해석성 자질 점검을 통한 합치된 도출을 위하여 외현적 통사부에서 일어나며, 또한  $X^0$ -이동도 XP-이동과 마찬가지로 강 자질 점검을 위해 원칙적으로 외현적으로 인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asnik(1995)은 단지 생략구문에서는  $X^0$ -이동이 외현적으로 인상되지 않고 문자화 이후까지 연기 된 후 음성형태에서 생략이 일어나는 인상과 생략간의 상보성을 주장하며, Chomsky(2000)와 Boeckx & Stjepanović(2001)은 핵  $X^0$ -이동이 XP-이동과는 달리 음성형태의 한 현상으로 간주하여 XP-이동과는 다른 문법 구성 요소에서 일어나는 운용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통사부 운용의 XP-이동과 음성형태 운용으로서 핵- $X^0$ -이동의 비대칭적인 분리 운용은 단순성(simplicity)이라는 경제성의 관점에서 문법의 복잡성을 가중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통사부 운용으로 간주하는 XP-이동과는 달리, Lasnik의 음성형태에서 수의적인  $X^0$ -이동은 Collins(1997)가 주장한 국부적 경제성에 입각한 문법체계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즉, 동사의 생략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도출과정상에 미리 문자화 이후까지 예상하여 적용하는 ‘예상적 적용’이라는 최근 최소주의에서 제거된 지연원리에 따른다는 점이다. 반면에, Chomsky(2000)와 Boeckx & Stjepanović(2001)의 음성형태에서 일어나는 운용으로서  $X^0$ -이동은 구문적 상황에 따라 핵이 외현적으로 인상되거나 문자화 이후까지 남게 되는 핵 이동의 수의성 제거와 도출과정상에 미리 음성형태 표상구조를 살피는 ‘예상적 적용’을 제거함으로써 문법의 복잡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음성형태에서 이동과 생략을 선택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문법의 명료성이 떨어지게 된다. Boeckx & Stjepanović(2001)은 막연히 운용적 또는 형태론적 이유로 설명하고 있지만 음성형태에서 이동과 생략이 경쟁할 때 동사구 생략을 선택하게 되는 요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최대의 문제점으로 노출된다. 따라서 수의적  $X^0$ -이동이든 음성형태 운용으로서  $X^0$ -이동이든, 모두 문법의 경제성이나 명료성에 대한 문제점을 노

출한다.

측면이동으로서의  $X^0$ -이동분석은 협의통사에서 일어나는 XP-이동과 마찬가지로  $X^0$ -이동도 협의통사에서 운용됨을 설명함으로서, 기존의 XP-이동과  $X^0$ -이동의 비대칭적 운용을 대칭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문법의 단순성을 추구 할 수 있고, 경제성 원리의 관점에서 Lasnik의 수의적  $X^0$ -이동으로 인해 야기되는 '예상적 적용'이라는 국부적 경제성의 위반을 해결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Boeckx & Stjepanović(2001)의 음성형태에서 핵의 생략이 유발되는 모호한 원인을 측면복사이동(sideward copy movement)으로 해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법의 명료성을 확보 할 수 있다. 물론 공백화, 의사공백화 구문과 달리, 동사구 생략구문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이 요구되나 측면이동분석은 핵 동사 생략뿐만 아니라 기생구문의 분석에도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Hornstein(1999)의 통제구문(Control Construction) 분석에서도 섬 제약 조건을 피하는 수단으로 측면이동을 활용하고 있다. 물론 Hornstein(1999)의 통제구문에서 측면이동의 대상은 통제자(controller)가 될 수 있는 XP-이동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근본적으로 XP-이동이든  $X^0$ -이동이든 모든 이동은 협의통사에서 일어난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핵  $X^0$ -이동은 상황에 따라 수의적이거나 음성형태에서의 운용이라기보다는 XP-이동과 마찬가지로 협의 통사부에서 일어나는 통사적 구문현상으로 간주함으로서, 생략구문을 설명하기 위해 최근 최소주의이론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지연원리를 자연스럽게 제거하고 모든 이동현상은 통사적 운용이라는 결론을 지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가 있다.

## 인 용 문 헌

- Agbayani, Brian and Ed Zoerner. "Gapping, Pseudogapping and Sideward Movement," *Studia Linguistica* 58:3 (2004): 185-211.
- Alexiadou, Artemis, and Elena Anagnostopoulou. "The Subject-in-Situ Generalization and the Role of Case in Driving Computations." *Linguistic Inquiry* 32 (2001): 193-231.
- Boeckx, Cedric and Sandra Stjepanović. "Head-ing toward PF." *Linguistic Inquiry* 32 (2001): 345-55.
- Chomsky, Noam. "Some notes on economy of derivation and representation." In *Principles and Parameters in Comparative grammar*. Ed. Robert Freidin. Cambridge, MA: MIT Press, 1991. 417-54.
- .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The View from Building 29*. Ed. K. Hale & S. Keyser. Cambridge, MA: MIT Press. 1993.
- . "Categories and transformations."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 MIT Press, 1995. 219-394.
- .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work." *Step by step: Essays on minimalist syntax in honor of Howard Lasnik*. Ed. Roger Martin, David Michael, and Juan Uriagreka. Cambridge, MA: MIT Press, 2000. 89-155.
- Collins, Chris. *Local Economy*. Cambridge, MA: MIT Press, 1997.
- Hornstein, Nbert. "Movement and control." *Linguistic Inquiry* 30 (1999): 69-96.
- Johnson, Kyle. "Bridging the gap." Ms.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1994.
- Joo, Chi-Woon. "Ellipsis and Movement," *STEM Journal* 5:2 (2004): 101-120.

- , "Focus Feature and Head Movement," *STEM Journal* 6:2 (2004): 175-91.
- Koizumi, Masatoshi. *Phrase structure in minimalist syntax*. Doctoral dissertation. Cambridge, MA: MIT, 1995.
- Lasnik, Howard. "A note on Pseudogapping." *Papers on minimalist syntax,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27. Ed. R. Pensalfini and H. Ura. Cambridge, MA: MIT, 1995.
- , "Levels of Representation and The Elements of Anaphora." To be presented at the workshop on "*Binding and Atomism*" (Holland Institute of Generative Linguistics, Leiden.) U of Connecticut P. 1996.
- , "On Feature Strength: Three Minimalist Approaches to Overt Movement." *Linguistic Inquiry* 30 (1999): 197-217.
- , "Syntactic structures revisited." *Contemporary lectures on classic transformational theory*. Cambridge, MA: MIT Press, 2000.
- Lobeck, Anne. *Ellipsis: Functional heads, licensing and identification*. New York: Oxford UP, 1995.
- Nunes, Jairo. "Sideward Movement." *Linguistic Inquiry* 32 (2001).
- Nunes, Jairo and Juan Uriagereka. "Cyclicality and extraction domains." *Syntax* 3 (2000). 20-43.
- Pollock, Jean-Yves. "Verb movement, Universal Grammar, and the structure of IP." *Linguistics Inquiry* 20 (1989): 365-424.
- Ross, John Robert. *Constraints on variables in syntax*. Doctoral dissertation. Cambridge, MA: MIT, 1967.

Abstract

## **A Study on Head Operations in Verb Ellipsis Constructions**

Chi-Woon Joo (Inha Technical College)

This study is a comprehensive critique of PF head movement in verb elliptical constructions, most advocated in recent minimalist studies, most notably Lasnik (1995, 1999) and Boeckx & Stjepanović (2001), and aims at arguing for the sideward copy movement of the verb, proposed by Agbayani & Zoerner (2004). The basic data for this study are about Gapping, Pseudogapping, and Verb Phrases Ellipsis (VPE) constructions that can cross a sentence boundary.

Lasnik argues that there are two possibilities for a convergent derivation; either the head can raise, presumably checking the relevant strong features, or the category contained the head can be deleted as a PF repair strategy. But this account may cause a severe problem of “look ahead” operations, based on one of the global Economy Principles, Procrastinate, which could not be tenable anymore. Boeckx & Stjepanović (2001) also claim to have evidence from the analysis of Pseudogapping that head movement is best viewed as occurring, not in the overt syntax, but in the PF component. They assume that the trigger of PF head movement is not featural, but may well be morphological, or prosodic, or as a mixture of the two. However, this analysis might immediately arise a question of what triggers ellipsis, when verb raising and ellipsis compete in PF.

Agbayani & Zoerner (2004) argue that Gapping and Pseudogapping involve the application of verb movement, in particular the sideward

movement of the verb, proposed by Nunes (2001) and Nunes & Uriagereka (2001) for the possibility of sideward movement out of coordinate structures and adjunct clause. They present persuasive evidence that Pseudogapping and VPE are fundamentally unrelated transformationally, but Gapping and Pseudogapping share verb movement across the board. This sideward movement analysis is most meaningful to seek simplicity in Grammar. This paper puts focus on attesting an overt syntactic approach to head movements in elliptical constructions, following Agbayni & Zorner (2004)'s sideward copy movement.

**key words:** Gapping, Pseudogapping, VPE, sideward movement, ATB movement.